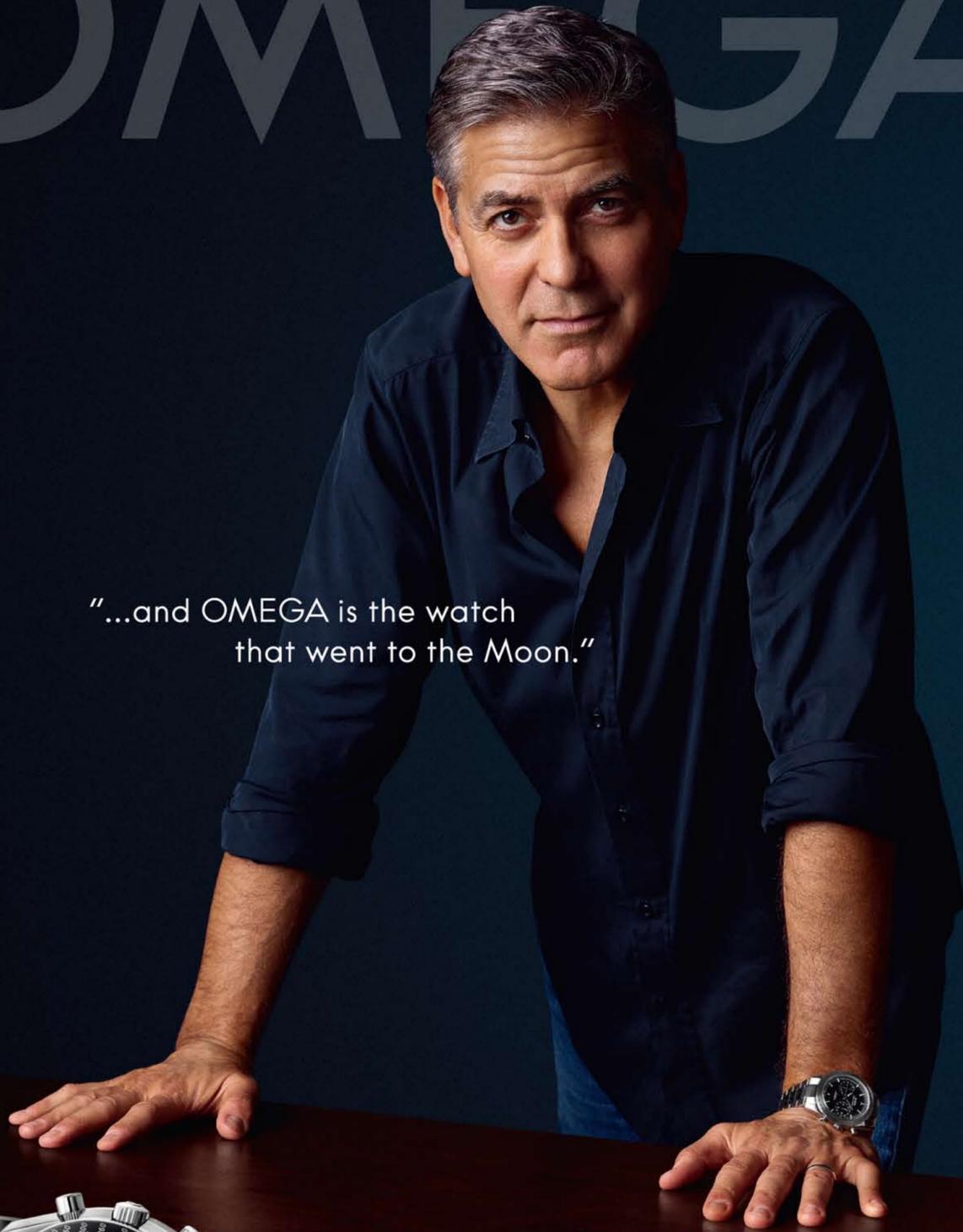


# OMEGA



"...and OMEGA is the watch that went to the Moon."



GEORGE CLOONEY'S CHOICE

#moonwatch

Ω  
OMEGA  
Speedmaster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 Style <sup>조선일보</sup>

AUGUST 2017  
vol.160



티파니™ 파베 세팅  
130년을 초월한 경이로운 전설

##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ont des Amoureux  
Poetic Complications watch  
white gold, diamonds, "contre-jour" enamel,  
mechanical movement  
with retrograde hours and minutes.



OBJECTS COME ALIVE





**CALVIN KLEIN**  
205 W39 NYC



26

18

조선포스트  
**Style**  
AUGUST 2017

TIFFANY & CO.  
TIFFANY DESIGN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뉴욕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Tiffany & Co.)가 탄생 1백30주년을 맞이한 티파니™ 세팅의 송고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선보인, 플래티넘 밴드와 프롱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파베 티파니™ 세팅 (Pavé Tiffany™ Setting) 링이다. 전 세계 1백30개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47-9488



28



12

# Style

조선포스트  
Issue.160 August 2017

- 16 **일출산집** **그랜드 투어, 지식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채집하다** 요즘을 여행할 둘러싼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마도 지식일 듯싶다. TVN의 예능 프로그램 '같이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의 인기가 지식을 채우고 시야를 넓히는 여행을 부각하는 데 기폭제가 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알에 대한 욕구' 충족한 여행자들은 그 과정에서 중대한 발견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세상을 바꿔왔다. 그 행선지가 '그랜드 아트 투어(Grand Art Tour)'의 해라고 할 만큼 내로라하는 미술계 행사와 열리고 있는 유럽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배움 터를 추가한다는 건 딱히 쓸 데가 없더라도 꽤 뿌듯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테니.
- 18 **MARRY YOU** 둘만의 공간에 채우고 싶은 멋진 그림과 가구,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아름다운 주얼리와 위치까지. 두 사람이 함께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특별한 제안.
- 24 **A LIFETIME OF BRILLIANCE** 선명하고 사랑스러운 티파니 블루 박스. 그 컬러만으로 여자들을 가슴 뛰게 하는 이 전설적인 브랜드 앞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고급한 솔리테어 링의 대명사, 프러포즈의 상징, 여자들의 꿈이 된 티파니의 블루 박스와 티파니의 웨딩 링 스토리.
- 25 **SKETCH YOUR LIPS** 사철의 신제품 립스틱, '르 무주 크레용 드 콜로르'는 같은 크레용 타입의 립 제품도 사철에서 만들면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1가지 컬러의 이 특별한 정보 립 크레용이 선사할 즐거운 컬러의 마법이 지금 펼쳐진다.
- 26 **SPEEDMASTER 60TH ANNIVERSARY** 1965년 6월 3일, 미국의 첫 우주 유영에 성공한 '에드워드 화이트'의 손목 위에 채워진 시계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라는 것을 아는가? 전설적인 워치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다. **THE PROPOSAL** 영원한 사랑에 바치는 가르피에의 한시가 TV 시리즈 <디 애프어(The Affair)>로 유명한 라이언 플릭과 애나 보든 감독의 앙상블 영화 (프러포즈)로 재탄생했다. 가르피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사랑, 그리고 프러포즈 이야기.
- 27 **SWEET DREAMS** 사랑하는 연인과의 낭만적인 프러포즈의 순간에도, 그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는 웨딩 마치에서도, 항상 완벽한 아름다움과 최상의 가치로 함께할 타사키의 웨딩 주얼리 컬렉션.
- 28 **SHEER BLISS** 고귀하고 클래식한 웨딩드레스부터 사랑스러움이 빛을 발하는 원피스 룩까지. 그 어느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가을 신부의 로맨틱한 웨딩 신.
- 36 **BIG MATCH** 휴양지로 떠나문을 떠난다면, 수영복부터 플링블룸, 선글라스, 카메라까지 모두 담을 수 있는 가볍고 실용적인 빅 사이즈의 비치 백이 필수다. 비치 웨어를 빛내줄 워트 있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빅 사이즈 백 컬렉션.
- 37 **LUXURY SLIDER** '슬리퍼가 패션 하우스 컬렉션에서 재조명받으며 '슬라이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양한 소재와 함께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시종리스 아이템으로 떠오른 럭셔리한 슬라이더의 매력.
- 38 **EDITOR'S PICK** 가장 아름답게 빛날 신부를 위한 웨딩 D-DAY 뷰티 아이템을 <스타일 조선포스트> 기자들이 직접 테스트해보았다.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포스트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포스트>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포스트>를 더욱 가까이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포스트>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ewel**  
**RUBY LUSTER**

가장 희귀하고 진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붉은빛 스톤,  
루비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귀한 루비로 빛나는 아이링을 완성한 대담한 디자인의 클래식 버터플라이 아이링 **그라프**, 5.48캐럿에 달하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주변을 생동한 레드 컬러 루비 1.58캐럿이 감싸고 있는 그라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카르미에**, 3.85캐럿에 달하는 오벌 컷 루비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링 **블라키어**, 볼드한 스톤의 루비 링 **그라프**, 뱀 모티프를 감명한 루비로 표현한 에-릴 컬렉션 링 **부세론**, 에디터 **베이지**

루비 주얼리 컬렉션



**Hot spot**  
**MOST BRILLIANT PLACE**

다이아몬드의 왕이라 불리는 그라프가 지난 6월 29일 갤러리아백화점 이스트 1층에 그라프 살롱을 오픈했다. 이는 신라 호텔에 입점한 그라프 부티크에 이은 두 번째 매장으로,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럭셔리 밀집 지역에 자리 잡았다. 그라프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이 주얼리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유지해온 주얼리 브랜드로,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행운일 것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이스트점에 들어서면 수많은 슝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이 새로 오픈한 그라프 살롱이다. 다이아몬드의 명작다운 놀라운 하이 주얼리 피스를 전사한 이 공간은 세계적인 건축가 피터 마라노가 독특한 리테일 콘셉트를 기반으로 디자인했다. 매장을 전체적으로 모던한 감각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주얼리 하나하나를 더욱 강조할 수 있도록 골드 컬러로 통일한 것. 특히 입구에서 눈길을 끄는 지그재그 도형 모티프의 금빛 메탈 벽 패널은 자구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를 발굴해 캐팅, 폴리싱, 세팅 과정을 진행하는 그라프만의 놀라운 장인 정신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해, 보다 완벽한 공간에서 그라프 주얼리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그라프는 워딩 시즌을 맞아 약혼반지 세팅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라프 다이아몬드의 회장 로렌스 그라프가 평생 간직해온 다이아몬드에 대한 열정에서 영감을 받은 브라이덜 컬렉션은 유명한 원석의 이름을 약혼반지 시리즈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각각의 원석은 대자연이 선사한 진귀한 선물이기 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라프의 철학에도 일치한다. 그라프 갤러리아 살롱을 방문해, 눈앞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찬사를 직접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문의 02-6905-3330 **에디터 이지연**



**Beauty**  
**FULL LASH**

속눈썹을 붙이지 않아도, 아이리라인을 그리지 않아도 마스크라만으로 충분히  
도톰하고 예쁜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맨 얼굴일 때도 속눈썹을 튼튼히 올려  
후 눈썹 끝에만 마스크라를 속속 무성하게 타닥해주면 인상이 훨씬 도톰하고 깔끔해  
보인다는 사실. 뭉침 없이 한 올 한 올 발리면서 번지지 않고 속눈썹을 연장한 듯  
자연스럽고 아찔한 속눈썹 연출해줄, 인성 마스크라를 모두 모았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스티 로더 더블 웨이 제로-스미지 랩스닝 마스크라**는 에스티 로더 더블 웨이 컬렉션의 모든 제품이 처음 바른 상태 그대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유명하듯, 한번 바른 후 시간이 지나도 번지거나 뭉쳐 가루 날림 없이 볼륨감 있는 속눈썹을 깔끔하게 유지해준다. 밀라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따뜻한 물과 클렌저로는 쉽게 지워지는 편이므로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된다. **시세이도 미터블 액스 트립**은 강력한 3D 효과라는 광고 문구처럼 3D 볼륨, 길이, 컬링 효과를 강화한 제형. 리프트 특성을 갖춘 차세대 폴리머 브러시를 적용해 번지지 않고 생생하게 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번지지 않는 지속력을 보장한다. 특히 아시아 여성의 눈에 특화해 가늘어진 제형인 만큼 순수한 블랙 색소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속눈썹을 클로시한 악으로 코팅해 볼륨감과 컬링 효과를 극대화한다. **89 4인1안**, **말레드브 보메 마스크라 실 에디션**은 가볍고 탄성이 좋은 중공성으로 만든 브러시를 사용해 마스크라가 속눈썹에 매끄럽게 발리도록 도와주고, 360도로 볼은 마스크라 도가 속눈썹 뿌리까지 균일하게 코팅해 자연스러운 눈썹을 완성한다. 순수한 색소뿐만 아니라 보습력 있는 이온건 오일 성분을 담아 손상된 속눈썹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 일주일간 7mm 모난선생님 **시세이도 플 래쉬 얼터-다인션 마스크라 워터프루프**는 가벼운 파우더 타입이지만 풍성한 볼륨 효과를 주는 포폴라를 적용해 강력한 지속력으로 처음 일기 볼륨이 극대화된 속눈썹 실루엣을 연출해준다. 360도 회전 가능하고 최대 30초까지 구부러지는 브러시로 짧고 잘 말지 않는 속눈썹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강력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추어 물이나 땀에도 걱정 없다. **89 4인1안**,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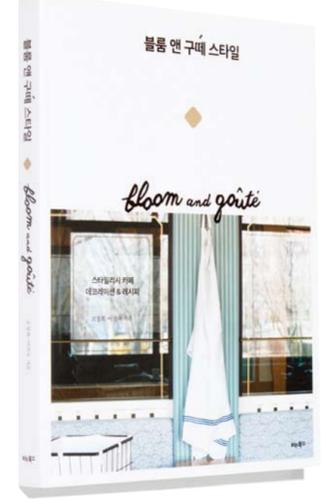
루비 주얼리 컬렉션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ook**  
**'가로수길 풍경'의 시작을 알린 명물 카페 스토리,**  
**〈블룸 앤 구떼 스토리〉**

지금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지만 아직까지 한 건물들이 웅크리기 모여 있는 한적한 동네였던 가로수길. 2004년, 이곳 중간쯤에 운치 있는 유망식 노천카페 '블룸 앤 구떼(Bloom and Goûte)'가 들어섰고, 그 덕분에 예쁘고 특색 있는 가게가 하나둘 생겨났다. 세련미 흐르는 서울 강남의 명물,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핫 플레이스로서의 가로수길 풍경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알 만한 이들은 블룸 앤 구떼가 가로수길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시만 해도 새로운 콘셉트였던 '꽃과 케이크를 파는 카페, 블룸 앤 구떼'는 매거진 에디터 출신인 피터에게 조정화와 플로리스트 이진숙의 개성과 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합작품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블룸 앤 구떼 스토리〉이 출간됐다(조정화·이진숙 지음, 비터북스 펴냄). 이 책은 유행의 범람 속에서도 긴 시간 동안 블룸 앤 구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얘기를 담은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가로수길에서 13년간 경험하고 터득한 것들의 진정성 있는 기록임을 내세운다. 악자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취향과 감각을 녹여온 경험담은 물론, 모양새와 맛도 일품인 인기 디저트 비법과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사인과 함께 풍성하게 담겨 있다. 가격 1만5천8백원.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은은한 울림의 미학, 〈이진우 개인전〉**

카드린 캔버스 위에 솟을 깔아 붙이고 한자로 덮은 후, 이를 쇠 브러시로 문지르고 두드린 다음 수십 겹의 한자를 반복해서 붙이는 작업, 일종의 수채화 같은 반복된 행위 속에서 솟의 형상은 사라지고 한지 위로 우물투둥한 질감이 드러나면서 작품의 입체감이 부각된다. 이처럼 한지와 먹, 솟 등을 활용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멋과 정신을 담아낸 고유한 작품 세계를 펼쳐내며 프랑스에서 활동해온 이진우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국내 첫 개인전의 양극적으로, 5백 호 대형 작품을 비롯해 최근작 2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진우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작가로 한자(韓字)의 가치로 통한다. 유럽에서 서양미술을 공부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다 보니 한지와 먹을 택했다고 한다. 피부라지 않고 물이 녹초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강도 높은 작업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작가의 태도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일까? 작품을 감상해보려면 경이롭고 은은한 울림이 이는 듯하다. 일찍이 그의 작품 세계를 단색화의 감성과 맞닿는다고 평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02-724-7816 **에디터 고성연**



-822 3443 2323 PRADA.COM



1 콜링을 모티브로 이어링 1백20만원  
**마네나니 by 코르소 코모**, 2 레이스를 형상화한 프레이밍이 독특한 선글라스 50만원대 **돌레덴가 바나 by 록스타가 코리아**, 3 미니멀한 디자인의 총 & 린 실루엣 웨딩드레스 1천만원대 **알베르타 페레티 by 아틀리에유**, 4 미치 손가락에 반지를 긴 것같이 연출되는 유니크한 클리프, 17X9cm, 4백만원대 **일렉산더 맥퀸 by 분더샵**, 5 플러워 모티브 헤어 핀 50만원대 **카렌울프 by 아틀리에유**, 6 달콤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쏘대 40만원대 **에르메스**, 7 나나리치 액세서리에서 영감을 받은 불가리안 로즈 향의 향수, 80ml, 13만 2천원 **나나리치 텍스타즈 가레스 드 로즈 리제**, 8 순백의 난초를 표현한 참 장식의 브리올렛 51만5천원 **판도라**, 9 화관을 두른 듯한 느낌의 헤어밴드 1백만원대 **카렌울프 by 아틀리에유**, 10 풍요로운 풍이가 특징인 스파클링 와인 아이스 캐비 6만원대 **프레사넷**, 11 삼페인 잔 48만원대(2개 세트) **스워로브스키**, 12 플러워 패치 장식이 눈길을 끄는 카푸신 백, 27X18cm, 6백만원대 **루이비통**, 13 스위로브스키 플로럴 장식의 슈즈 4백96만원 **지미후**, 14 다양한 원색으로 장식한 헤어 핀 80만원대 **보태가 베네타**, 15 우아한 케이스에 화이트 레더 스트랩을 더한 수량 데 두렐 레이디 워치 1백만원대 **티쏘**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록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아틀리에유 02-517-3889 분더샵 02-2056-1234 판도라 1688-5501 나나리치 향수 02-3443-1805 에르메스 02-542-6622 프레사넷 02-2109-9200 루이비통 02-3432-1854 지미후 02-3443-9469 보태가 베네타 02-3438-7601 티쏘 02-3467-8795 스위로브스키 1661-9060

# for her Selection

새로운 웨딩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스몰 웨딩.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아의 웨딩에 어울리는 웨딩드레스와 그에 걸맞은 신부를 위한 웨딩 아이템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TASAKI

ASPERIAE의 영감을  
 이타스키에 반영  
 에디터 이지연



1 심플한 가죽 브레이슬릿 60만원대  
 2 세련된 셔츠에 포인트가 되어줄 알렉스 리클루 카프스 링크 7백80만원대 가먼트에, 3 브랜드 특유의 카드 슬릿 디테일이 돋보이는 카드 지갑 30만원대 발렌티노, 4 품격이 느껴지는 네이비 컬러 소가죽 구두 92만9천원 루이비통 by 유 니메어, 5 더블 T 로고 소가죽 벨트 56만원 토즈, 6 텍스처를 차용한 남성용 연상시계는 감각적인 보틀의 미스터 버버리 오드 퍼퓸, 100ml, 14만원대 버버리, 7 더블 브리지로 구성된 클래식한 안경 30만원대 레이첼 by 루스티카 코리아, 8 밝은 회색 오소리 강모를 사용해 자극적이지 않은 세면용 브러시 8 & 스탠드 47만원 아무아 디파르마, 9 유연한 타이거 가죽 소재와 알루미늄 소재의 호라이즌 롤링 라가 지, 37x49cm, 5백10만원대 루이 비통, 10 고급스러운 메트로폴리스 인트레치아토 나비 브리프케이스, 38x27cm, 3백만원대 보타가 베네타, 11 워딩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포말한 블랙 스트레이트 팀 슈즈 78만4천원 아, 테스토나, 12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 블랙 레더 스트랩으로 완성한 다이아몬드 그린데 세컨드 워치 3백45만원 리도, 13 배럴 위에 플래티넘 도금한 6개 언어의 대표 글자를 입체적으로 조각한 유니세프 마이스터스틱 스텝백 민트필 1천2백만원대 몽블랑, 14 텍사도 슈트 2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32만5천원, 블랙 라인 화이트 행커처프 11만원, 보타이 18만5천원 모두 보스 맨, 리도 02-2639-1964

에르메스 02-542-6622 가먼트에 1566-7277 발렌티노 02-3438-6196 유 니메어 02-542-0370 토즈 02-3438-6008 버버리 02-6002-3200 루스티카 코리아 02-501-4436 아무아 디 파르마 02-517-5218 루이 비 통 02-3432-1854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아, 테스토나 02-554-4310 몽블랑 1670-4810 보스 맨 02-515-4088 리도 02-2639-1964

# for him Selection

일상에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 잘 차려입은 텍시도만큼이나 세련된 액세서리를 갖춰야 하는 예비 신랑을 위한 셀렉션을 공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햇살을 들이는 창이 바람까지 들어선 안된다  
 [ 4중 복합 시스템 창호로 빈틈없는 단열 ]

문의 개수가 걱정이 개수가 되어선 안된다  
 [ 세대별 32대 무인 감지기 / 24시간 상주 보안요원 ]

지붕이 지붕의 일만 하게 해선 안된다  
 [ 월 350kWh 전기생산으로 누진세를 절감하는 태양광 패널 ]

자연의 힘 앞에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  
 [ 규모 6.5 지진까지 견디는 튼튼한 설계 ]

—  
 단독주택에 바라던  
 당신의 생각,  
 루시드 에비뉴가 되다  
 —



4중 복합 시스템 창호



빈틈없는 보안 시스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



지진에 강한 내진설계

사전예약  
 1670-1232



# ‘알쓸신잡’ 그랜드 투어, 지식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채집하다

요즘 여행을 둘러싼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마도 ‘지식일’일 듯하다. tvN의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의 인기가 지식을 채우고 시야를 넓히는 여행을 부각하는 데 기폭제가 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알’에 대한 욕구를 실천한 여행자들은 그 과정에서 중대한 발견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세상을 바꿔왔다. 올여름이나 하반기에는 나만의 ‘알쓸신잡’ 여행을 계획해보면 어떨까? 그 행선지가 ‘그랜드 아트 투어(grand art tour)’의 해라고 할 만큼 내로라하는 미술계 행사가 열리고 있는 유럽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배움 터를 추가한다는 건 딱히 쓸 데가 없더라도 꽤 뜻깊고 즐거운 경험이 될 테니.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아나톨 프랑스*

여행 자체가 ‘호사’이던 시절이 그다지 오래전은 아니다. 기차, 비행기, 요트 같은 ‘탈것’의 발명이 뒷받침되면서 여행이 점차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었으니 말이다. 올여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루이 비통(Voiez, Vozeg, Voyages Louis Vuitton)》 전시만 봐도 1백 년 전의 여행길 풍경이 어땠는지 머릿속에 절로 그림이 그려진다. 글을 쓰는 작가가 먼 여행을 떠날 때면 집필용 데스크, 이동식 서재를 담은 특수 트렁크를 동반했고, 화가는 각종 도구와 캔버스를 가득 담은 페인팅 트렁크를 여러 개 짊어진 채 떠나기도 했다. 태블릿 PC 하나면 전자책을 수백 권 담아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전자 펜슬도 정교한 그림을 그릴 어디든 전송할 수도 있는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는 생각만 해도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마저도 소수만의 특권이었던 것만 같다. 알다시피 이제 여행은 흔해졌다. 입이 떡 벌어지는 럭셔리 투어가 존재하기는 해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저렴하고 실속 있는 여행도 가능하다. 심지어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가보지 않아도 그곳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유튜브 시대, 첨단 기술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진짜 같은 가상 체험도 할 수 있는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발품 파는 여행을 갈구한다. 물론 쉽 없이 캣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 지친 나머지 ‘홈강스(home+vacance)’를 택하는 이들도 많지만, 에너지와 노잣돈이 있는데도 “난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부류의 인간을 찾기는 힘든 것이다. 중세에 ‘순례 여행’이 생겨난 건 쾌락 추구적이었던 로마인들이 발명해낸 ‘휴가 여행’이 용인되지 않자 떠남의 욕구에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인간의 속성을 가리켜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 그랜드 투어, 유럽을 강타했던 ‘문화 답사 여행’

그중에서도 호기심이 유달리 풍부한 이들은 자주, 멀리, 그리고 꽤 ‘심도 있게’ 여행을 한다. 곁길기식이 아니라 현지 언어와 문화, 역사를 접하고 습득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부대끼 수 있는 밀도 높은 체험을 꾀하는 유형이다. 그저 남의 얘기나 스크린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지식은 손쉽게 휘발될 수 있지만, 고된 여정에서 체득하는 그 무엇인가는 마치 혈액

처럼, 지문처럼 남기 때문이다. 단순한 지식의 채집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의 여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먼 곳으로 떠나는 지식 여행을 수백 년 전 유럽에서는 ‘그랜드 투어(grand tour)’라고 불렀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자녀를 유럽 대륙으로 보내 외국어와 문화, 세련된 취향을 배우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는데,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19세기 들어서는 미국 땅으로까지 건너갔다. 설해심 교수가 쓴 《그랜드 투어》라는 책을 보면 토머스 홉스, 애덤 스미스, 볼테르, 괴테 등 당대 수많은 지성들이 동참하면서 예술과 건축의 발달을 촉진하고 계몽 사상을 전파하는 등 유럽 근대사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시 그랜드 투어를 떠난 영국 여행자들의 루트는 오늘날의 유럽 배낭여행 일정을 길게 늘려놓은 듯하다. 여행 기간이 3년이라면 절반은 프랑스에 체류한 뒤 9~10개월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거친 다음 나머지 5개월은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보내고 귀국길에는 다시 파리를 찾는 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 토양에 스텝없이 녹아드는 친밀한 교류를 연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랜드 투어리스트는 대개 귀족 등 상류층 자제였던 만큼 화려한 사교계를 둔 문명화된 도시를 여행지로 선호했고, 자국인을 만날 수 있는 살롱 같은 장소에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다소 ‘표피적’이었다고 해도 그랜드 투어가 상당한 지식,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통찰력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된 건 명백하다. 유럽 번방에 자리한 약소국, 그리고 항상 ‘대륙’의 찬란한 문물을 동경했던 영국이 철보 강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그랜드 투어 시절의 정 보력 DNA가 초석이 됐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 타지와 사랑에 빠진 지식 여행자들

흥미로운 점은 산업혁명을 등에 업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영국인들은 마냥 선망의 눈빛을 품고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낯설이 낯가라 높아지고 있던 이 섬나라 사람들은 ‘이탈리아인들은 빛나는 문명을 잃어버린 건 물론, 그 과거를 계승할 후계자 자격도 부족하다’는 태도로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를 만끽하는 동시에 문화적 콤플렉스를 달래고자 했다. “...일찌기 로마제국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활기에 넘쳐 있었을가를 생각하면서 조금의 황폐한 이탈리아를 눈앞에 대하노라면 실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오카다 아쓰시가 집필한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에서 발췌). 1705년 나폴리까지 여행을 했던 조지프 에디슨이 펴낸 《이탈리아 각지의 보고》에 나오는 대목

9월 14일 642쪽

이다. 그렇지만 더러 불평을 토로하더라도 ‘도시의 속살’을 점차 발견해나가면서 사랑에 빠진 이들도 많았다. 영국 화가 토머스 존스(Thomas Jones)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에 흠뻑 반한 나머지 1778년부터 1783년까지 머물렀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별다른 특색 없는 건물의 외벽을 그린 그의 그림은 신화나 영웅담, 숭고미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담아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해마지않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나폴리의 태양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는 이곳 저곳 여행을 많이 다닌 작가였는데, 이집트에서 깨달음을 얻고 프로방스의 풍광에 빠지기도 했으며 베니스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베니스의 가을’이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1897년 베니스를 처음 방문한 그는 이후 틀날 때마다 가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머물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골목에서 길을 묻는 여행자에게 적적 안내해줄 정도로 베니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다고. 조각가 로댕의 비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예술에 조예가 깊었기에 베니스에 대한 그의 글은 미학적, 역사적 통찰이 스며 있는 빼어난 ‘인문학적 여행 가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소설 《알테의 수기》에서도 ‘세계의 아름다운 균형추라는 표현을 쓰면서 베니스를 관광객들이 흔히 생각하는 ‘몽환적인’ 모습이 아니라 잠재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도시로 묘사했다. 이처럼 작가들은 타지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거주지를 옮겨 살다가 위대한 작품을 빚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태생의 소설가로 중군기자 등을 거친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파르타루한 젊은 시절 파리에서 7년을 보내며 글쓰기에 몰두했고, 인생 후반부에는 쿠바에서 7년간 머물면서 명작 《노인과 바다》를 탄생시켰다.

## 연구 여행의 물꼬를 튼 알렉산더 훔볼트, 모터사이클 여행으로 혁명기로 거듭난 체 게바라

독일인 여행자로 문화 예술이 아닌 자연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도 있다. 남아메리카 탐험에 나서 오리노코 강과 아마존 강 상류 지역을 조사하면서 방대한 기록을 남긴 알렉산더 훔볼트. 어릴 때부터 식물, 동물, 광물 채집을 좋아했던 그는 당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부모님의 유산으로 식물학자인 친구 볼프랑과 함께 1799년부터 1804년까지 5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을 탐사했다. ‘황금의 땅’에 대한 환상을 품고 떠나는 정복 여행이 아니라 탐구와 조사를 위한 여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랜드 투어리스트로서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저서를 남긴 괴테는 “지식

이나 생각, 지혜에 있어 그만한 사람이 없다”며 훔볼트를 숭배했다고. ‘남미’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 중에는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로 유명한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Che Guevara)도 빼놓을 수 없다. 20대 초반에 친구와 조국 아르헨티나를 떠나 8개월 동안 쿠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을 거치는 남미 여행을 하면서 민중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모든 형태의 계급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일념으로 혁명가의 길을 걷는다. 20세기 전반기의 인물이지만 체 게바라의 궤적을 따라 남미를 여행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요즘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 여행자로선 한국 최초의 세계 여행가 김찬삼 교수를 기억할 만하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드리워져 있던 1958년 첫 세계 여행을 떠난 이래 평생에 걸쳐 20차례 장기 배낭여행을 하면서 지구를 32바퀴 돌았던 그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나만의 견문록을 쓰겠다는 꿈을 실현한 인물.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러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갈 정도로 열정적인 행동가로 살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긴 그는 ‘세계의 나그네’라는 별칭을 얻었다.

올해는 많은 이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해다. 동시대 미술을 중심축으로 한 굵직한 행사가 10년 만에 겹치는 흔치 않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다. 5년 주기로 독일 카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 도큐멘타(Documenta, 6월 10일~9월 17일, 올해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시차를 두고 먼저 열렸다)를 비롯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베니스 비엔날레(5월 13일~11월 26일), 그리고 10년마다 찾아오는 공공 미술 축제인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6월 10일~10월 1일)가 그 주인공이다. 미술 관계자는 물론이고 미술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21세기 문화 예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이 행사들을 둘러보고, 그 감에 현지 명소를 아우르는 인문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다. ‘2017년 그랜드 아트 투어’라고 불릴 정도다. 이는 만큼 보인다 그렇지만 ‘보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한 지식 수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임은 틀림없다. 일단 직접 보고 부딪혀봐야 칭찬도, 비판도 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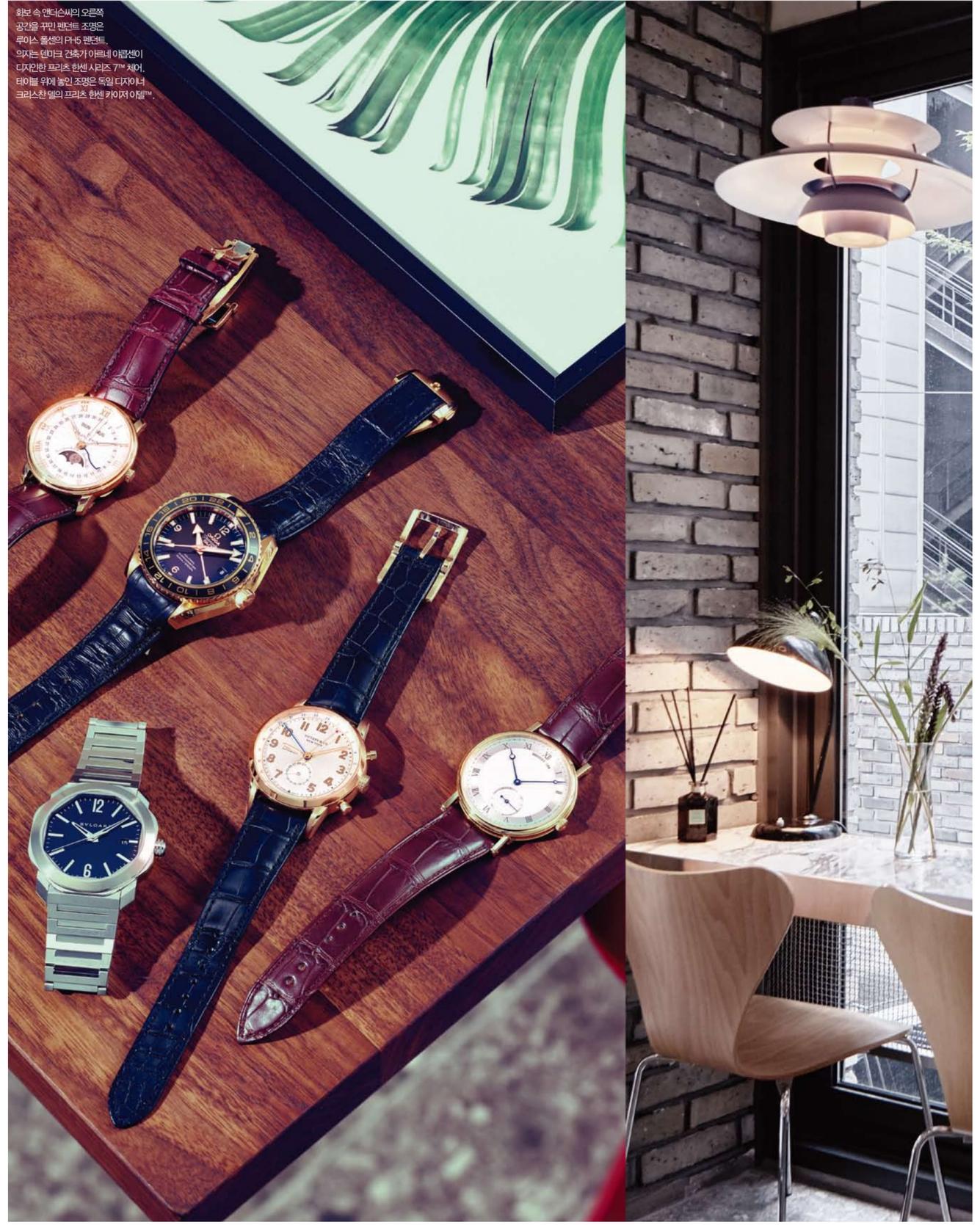
꼭 바다 건너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문화적 자산을 제대로 돌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동방견문록》, 《하멜표류기》와 함께 근대 이전에 기록된 세계 3대 여행기로 꼽히기도 하는 《포해록》을 남긴 조선의 판료 최부(1454~1504)가 난파된 배에 실려 중국 땅에 내렸을 때 처형될 뻔하다가 살아남은 건 중국인 조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당당한 기개가 덕분이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도 있을 듯하다. **이태리 교양전문**

하모니를 상징하는 연석의 작품은 김환기(Kim Whan Ki)  
 장화(24.4x-73x320, 100x78.5cm)  
 1백18만원 by 프린트 에이전시



# Marry You

둘만의 공간에 채우고 싶은 멋진 그림과 가구,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아름다운 주얼리와 워치까지.  
 두 사람이 함께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특별한 제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화보 속 앤디스씨의 오른쪽  
 공간을 꾸민 팬던트 조명은  
 루이스 홀센의 파우 팬던트.  
 인자는 덴마크 건축가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프리츠 한센 시리즈 7™ 제어,  
 테이블 위에 놓인 조명은 독일 디자이너  
 크리스찬 벨의 프리츠 한센 카이저 아펠™

장수 핸드 앤디스씨(02-543-0865) 작품 촬영: 프린트 에이전시(1599-3403)

**Classic Men's Watches** (엔더 디자인 세상에 만조 디자인 프리츠 한센 에세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맨 왼쪽 제품부터 차례대로) **블랑팡 빌라레 컴플리트 캄터** 빌라레 컬렉션의 마. 아이가나 이 워치에 대한 로망이 있는 남자라면 아이코닉한 빌라레에 문패이즈, 컴플리트 캄터, 세컨드 핸드즈의 기능을 모두 다한 뉴 빌라레 컬렉션을 놓여줄 것. 특히 6시 방향의 문패이즈 창은 이 워치의 품격을 드러내는 포인트다. 3천만원대, **오메가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 다이버 워치 특유의 스테이튼 외관과 기능에 18K 레드 골드 소재와 가죽 스트랩으로 클래식함을 더해 스포티한 데일리 워치를 찾는 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강렬한 블랙 다이얼의 다이버 워치. 3천만원대, **롤렉스 오트모마** 롤렉스의 남성 시계인 오트모마를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오트모마의 신제품 워치, 엔트리 가격대로 선택하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7백만원대, **타파니 CT60 듀얼 타임** 이 워치의 가장 큰 매력은 브랜드의 본류인 뉴욕의 모던하고 세련된 도시 감성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코트 드 주네브, 페를라주와 같이 하이엔드 워치에 적용하는 테크닉을 확인할 수 있다. 1천5백만원대, **브레게 클라시 7147** 워치 컬렉터들에게도 로망이 브레게의 대표 클라시 시계로, 상세한 디테일에 감탄하게 된다. 브레게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엔진 타당 장식, 다이얼과 스물 세컨즈 서브 다이얼에 정교하게 새겨진 패턴, 상징적인 블루 스틸 핸즈가 대표적이다. 2천5백만원대.

[OPPOSITE PAGE] **Propose Wedding Rings**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1. 71캐럿의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양쪽에 입체적인 꽃잎 모티브를 다한 에펠타이 링 6천2백만원대, 각 7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리워 워딩 밴드 2천2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밴드 총 16캐럿의 파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4-프롱 세팅의 비라브드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4천만원대, 우아한 곡선을 이르는 밴드 디자인의 옹드 파피 솔리테어 링 0.77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유려한 라인이 메인 스톤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는 트라.티 루반 솔리테어 링 1.14캐럿 기준 5천9백만원대, 까르띠에 워딩 링 중 가장 인기 있는 솔리테어 1865링 2.12캐럿 기준 9천2백만원대, 오르지 다이아몬드란 이루어진 광채를 보이는, 미아 드로 파베 세팅 7캐럿으로 완성한 까르띠에 데스타네 솔리테어 링 1.5캐럿 기준 5천3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롤렉스의 대표 아이코닉 비제 로윈 인기가izen트 링 0.3캐럿 기준 7백만원대,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밴드가 양쪽에서 모이는 형태가 우아한 베.타이 링 1.55캐럿 기준 8천2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캐럿의 브리지가 메인 다이아몬드를 품은 인문트로 디모레 링 1.01캐럿 기준 4천5백만원대 모두 **롤렉스**. 밴드를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피아노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5백만원대,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를 떠받치는 심플한 피아네 솔리테어 링 2.04캐럿 기준 가격 미정, 라본의 유려한 곡선을 연상시키는 비온드 인기가izen트 링 1.57캐럿 기준 6천5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24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라운드 리지 플래티넘 워딩 밴드 링 7백만원대 **부쉐론**. 메인 스톤 주변과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9백만원대 **파이퍼**. 트라.티 링의 우아한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트라.티 루반 워딩 밴드 7캐럿인워딩대 **가르띠에**. 피리 빌통 광장의 팔각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메르 다이아몬드 밴드 링 4백만원대, 동백꽃의 우아한 꽃잎을 표현한 까펠리아 인기가izen트 링 1.05캐럿 기준 3천만원대, 사슴의 킬트 패턴을 적용한 마블라베 솔리테어 링 0.55캐럿 기준 1천만원대 모두 **사실 와인 주얼리**. 심플한 디자인의 타파니 솔리스트 다이아몬드 밴드 3백만원대, 라본의 미음을 이루어 메인 스톤을 감싸는 디자인이 특징인 타파니 노우 리본 링 1.34캐럿 기준 5천3백만원대, 밴드는 물론 6개의 프롱까지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파베 세팅한 타파니 파베 세팅 링 1.64캐럿 기준 7천5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캐럿대입자라도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erfect for Couple** (왼쪽부터) **티파니 아스트 워치** 세로형 다이얼을 가로형으로 과감하게 디자인한 워치 6백만원대, **사헬 J12 문메이즈** 사헬을 대표하는 J12 워치의 신제품으로 6시 방향에 문메이즈 기능을 갖췄다. 2천만원대, **까르띠에 랜더드 까르띠에** 미치 팬더 한 마리를 손목에 올려놓은 듯 유연하게 느껴지는 착용감이 특징이다. 4백만원대, **오메가 시마스타 어쿠어 테라 150M 컬렉션** 오메가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로, 최고급 보트의 나무 맥을 연상시키는 다이얼 디자인이 특징이며, 오메가 마스터 코-엑스컬 칼리버 8800으로 구동된다. 1천만원대, **미르셀 브루아**가 디자인한 녹색 페놀의 소재의 볼 바스미 체어 위에 놓인 맨 왼쪽 시계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알티몰다노 60주년 컬렉션** 울트라-스킨의 마스터라는 칭호에 걸맞게 알고 가깝다. 섬세하게 세팅 브라스드 스텔이 마감된 미드나잇 블루 컬러 다이얼, 디크 블루 악자 가죽 스트랩을 장착한 이 워치는 과거 피아제의 반지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다이얼 중앙에 추가한 신자 형태의 라인업이 특징. 43mm 남성 워치 3천만원대, 38mm 여성 워치 3천만원대, **종달량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 보철 데이트 오토매틱 커를 워치** 은빛이 감도는 은은한 화이트 컬러의 기묘세 다이얼, 그 위에 장식된 몽블랑 스타 패턴, 레드 골드 플레어링한 로마숫자 위아한 조화를 이루는 남성용 워치, 은은하게 빛나는 아디오브릴 다이얼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여성용 워치, 43mm 남성 워치 5백70만원대, 28mm 여성 워치 6백34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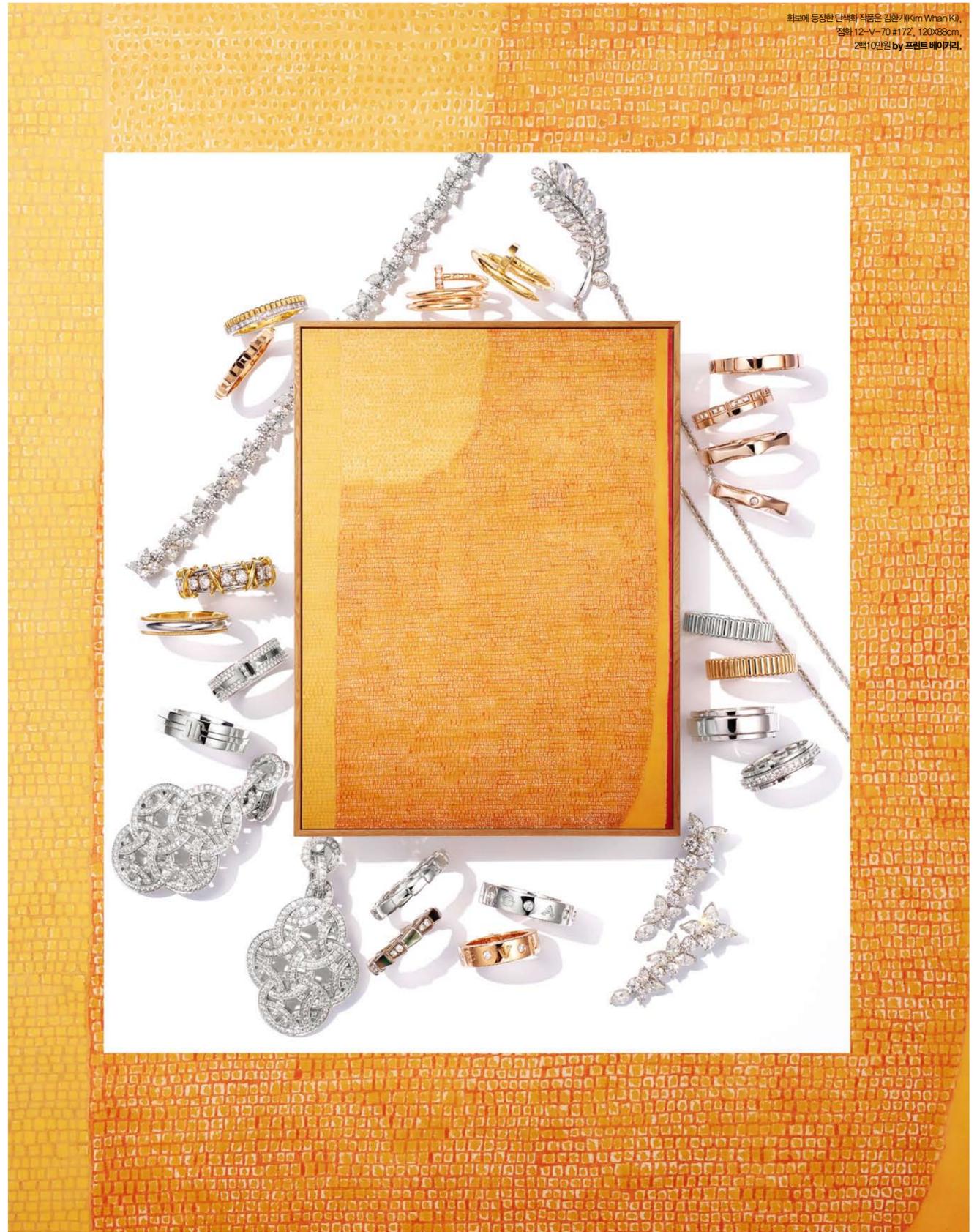
[OPPOSITE PAGE] **Elegant Touch Watch for Bridal**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헬 와인 주얼리 캐주얼리 주얼리 워치** 브랜드의 상징적인 동백꽃 모티브를 배젤 위에 표현한 여성 주얼리 워치. 5천만원대, **티파니 오벌 칼리브 워치** 배제인 스텔의 거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한 오벌 세이프 케이스에 세련된 블랙 세틴 스트랩을 매해 완성했다. 1천만원대, **에르메스 케임프 코드 PM 워치** 7종의 동그런 카본과 황금 특유의 리그 모양 케이스에 54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으며, 이보다 10배 더 많은 다이아몬드와 함께 다이아몬드 인테스로 장식한 바깥으로 사헬을 선보인다. 8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앙스트라오디네리 페 로즈 드 뒤 워치** 동화 속 판타지를 시계 다이얼 위에 표현하는 반클리프 아펠, 블루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그려대신 형태로 장식한 베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연상시키며, 풀리워 모티브 청은 여성 손목의 움직임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7천만원대, **블랑팡 우먼 오프 센터 어워 워치** 은하수를 수놓은 듯 알렉산더의 다이얼 위에 레트로 그래픽 기능을 더해,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를 충족시킨다. 3천만원대, **블가리 루체아 에-메이션 워치** 빛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luce'와 라틴어 'lux'를 결합해 이를 지은 루체아 워치, 호박 칼리브의 새로운 다이얼 컬러와 함께 골드와 스텔의 투톤 브레이슬릿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1천만원대, **브리케 레인드 비아올 워치 8918BA** 브랜드의 상징적인 에그 셰이프 케이스에 화이트 자개 다이얼, 6시 방향의 태어 컷 다이아몬드 사신을 사로잡는다. 7천만원대, **오메가 드 빌 프레스타지 듀드름 워치** 불방울 모양의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여성 시계, 옐로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자개 다이얼을 매치하고, 그 위에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나비 모티브를 새겨 넣었다. 3천만원대, **까르띠에 랜더드 까르띠에 워치** 브랜드의 상징적인 로마숫자와 레일 트랙 인테스, 시파이어 크라운, 손목에 착 감기는 유연한 링크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다. 2천만원대.



화보 속 앤드슨시 공간을 꾸민 조명은 아르테미데 톨로메어 메가 팬던트, 왼쪽 녹색 파브릭 চে어는 디자이너 마르셀 브루어의 놀 바실리 চে어, 오른쪽 레드 컬러 우드 চে어는 1980년대에 제작한, 디자이너 찰스 레이 임스의 하얀 말러 라운지 চে어 우드.



촬영: 1670-4810 **황지민** | 02-3479-6076 **남지혜** | 02-6805-3571 **서혜리** | 02-6805-3571 **서혜리** | 02-547-9488 **이민서** | 02-540-2297 **오지영** | 02-511-5787 **김민정** | 02-6805-3330 **김민정** | 02-6805-3367 **부유름** | 02-6805-3330 **부유름** | 02-6805-3330 **부유름** | 02-6805-3330 **부유름** | 1666-7277 **고지민** | 02-6805-3330 **고지민** | 02-6805-3330 **고지민** | 02-6805-3330 **고지민**



화보에 등장한 단색화 작품은 김완기 (Kim Wan Ki),  
정화 12-V-70 #172, 120x88cm,  
2박 10일 by 프린트 베이커리.

**Wedding Band Ring for Couple** 이은대 반지부터 시계 방향(역시) **까르띠에 자스트 영 클루 캄페션** 못을 모티브로 한 커플 링, 핑크 골드 더블 4백80만원대, 옐로 골드 링 2백70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플로르 네크리스** 깃털 팬던트 네크리스 9백만원대, **타사키 피아노 캄페션** 피아노 건반을 연상시키는 커플 밴드 링, 밴드 링 1백70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듀엣 링 4백10만원대, **타사키 라벨로 캄페션** 구름구름한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인 커플 링 각 1백20만원대, **부세론 리트로 그로그렘 캄페션** 라트로의 그로그렘 모티브로 만든 커플 밴드 링 각 2백만원대, **파이제 로제 선 캄페션** 중앙의 밴드가 자유롭게 회전하는 커플 밴드 링, 밴드 링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 링 6백만원대, **타파니 빅토리아 미스트 클러스터 드림 아이링** 독특한 마크와 패어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아이링 6천만원대, **불가리 불가리 로만 스크로 캄페션** 더블 불가리 로고 장식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한 커플 링, 각 3백만원대, **불가리 세르펜티 캄페션**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워딩 밴드 링, 화이트 골드 링 1백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링 4백만원대, **까르띠에 파리 누벨라그 캄페션** 기하학적인 패턴의 아이링 8천5백만원대, **타파니 T TWO 캄페션** 아나설 1기 대상을 이루는 구조적인 디자인의 반지, 다이아몬드 세팅 링 1천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 2백만원대, **타파니 잔 슬림베네 식스틴 스톤 링 & 일드레인 링** X 모터와 16개의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식스틴 스톤 링과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일드레인 링, 다이아몬드 세팅 링 1천8백만원대, 밴드 링 2백만원대, **타파니 빅토리아 미스트 클러스터 브레이크아웃** 활짝 핀 꽃을 형상화한 브레이크아웃 6천7백만원대, **부세론 리트로 레디언트 링 & 클루드 파리 링** 다이아몬드 세팅과 그로그렘 모티브를 결합한 리트로 레디언트 링과 파리 광장의 코플 스톤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클루드 파리 링, 다이아몬드 세팅 링 7백만원대, 핑크 골드 링 1백만원대.

[OPPOSITE PAGE] **Wedding Fantasy** (예를들면 면로 화이트 맨 위에 붉은 제롬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트윌트한 디자이너 우아한 마운트 팬드 브레이크아웃 가격 미장 **까르띠에**, 목선을 타고 리본을 우아하게 감은 듯한 다이아몬드 보우 네크리스 가격 미장 **그로브**, 깃털 모티브의 플로르 브레이크아웃 **샤넬 화인 주얼리**, 플라워 부케를 연상시키는 소크리테스 캄페션 링 4천5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타사키를 상징하는 벨라스 링, 직선 비와 밴드 링 **연연**에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했다. 1천8백70만원대 **타사키**, 다이아몬드로 활짝 핀 꽃을 형상화해 테니스 브레이크아웃 형태로 디자인한 빅토리아 미스트 클러스터 브레이크아웃 6천7백만원대 **타파니**, 남짓장하는 나비들을 정교하게 디자인한 버티블리 캄페션 링 5천만원대 **그로브**, 액자 모사리에 걸린 제롬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목에 올렸을 때 유려하게 흐르는 디자인 톤보이는 알티 다이아몬드 브레이크아웃 가격 미장 **그로브**, 진정한 하이 주얼리 워치 파스인을 드러내는 우먼 울트라 슬림 풀 패메 다이아몬드 워치, 오토매틱 칼라버 953A를 장착했다. 가격 미장 **불랑팡**, 미국 재즈 사티의 화려한 이브닝 워치를 연상시키는 스퀘어 케이스의 아르데코 2타임 워치 4천5백만원대 **타파니**, 마린 앙투 아레트가 입었던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블랑 드 라 라인 워치 가격 미장 **브라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팬더가 케이스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의 팬드 디 **까르띠에** 워치 가격 미장 **까르띠에**, 육각형의 엠 비늘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다이아몬드 아이링 4천5백만원대 **불가리**, 에디 베이킹, 권유진, 이자진



**티파니, 그 특별한 다이아몬드**

올가을, 웨딩 시즌에는 조금 특별한 이슈가 있다. 티파니의 전설적인 블루 박스가 조금 더 우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부드러운 소재에 완벽하게 티파니 블루 컬러를 구현한 새로운 박스는 여자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한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다이아몬드의 스토리는 어떤가. 1837년 설립 이후, 1백50년간 최고의 다이아몬드만 선보인 티파니는 아름다운 웨딩 링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티파니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다이아몬드의 기준인 4C(컷, 투명도, 색상, 중량)를 넘어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을 제시한다. 티파니에서는 '외관(presence)'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을 더해 정확성과 대칭성, 연마 상태를 평가하는데, 모든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장인의 손에 의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단 한 번 만들어지며 동일한 작업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면밀한 작업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떠받드는 프롱의 높이와 무게, 각도를 동일하게 맞추어 초창기 장인들의 의지 그대로 프롱 위에 세팅된 다이아몬드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러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함께 전달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Tiffany Diamond Certificate)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영원한 가치를 지닌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링 중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지금 이 페이지에 소개한 아름다운 반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각의 프롱(다이아몬드를 떠받치고 있는 발물림)에 주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선택한 티파니 세팅 링을 시작으로 여자의 손 위에서 광채를 발할 다양한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웨딩 링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가드 링을 다뤘다. 티파니 매장을 찾기 전, 이 웨딩 링 리스트를 기억한다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운명적인 선택을 더 현명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듯. 에디터 배미진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파베 세팅(Tiffany Pavé Setting)과 파베 밴드 링(Pavé Band Ring) 2016년,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 웨딩 링의 상징 티파니 세팅이 탄생한 지 1백3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출시한 티파니 파베 세팅 링. 센터 스톤을 둘러 올리는 6개의 프롱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티파니 보우 리본 링(Tiffany Bow Ribbon Ring) 손가락에 두르는 기분다란 삶의 매듭을 연상시키는 티파니 보우(Tiffany Bow) 컬렉션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이다. 플래티넘에 세팅한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을 유연한 곡선으로 감싸는 디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티파니 장인 장인들의 여실하게 보여준다. 노보(Novo) 노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뜻의 라틴어로, 티파니에서 처음으로 청초한 브릴리언트 쿠션 컷 링이다. 가장 화려한 광채를 선사하는 브릴리언트 컷과 17세기 후반 탄생한 고전적인 쿠션 컷을 결합해, 빛 반사를 더욱 화려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밴드 부분은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양쪽에 세팅해 볼륨감을 더욱 극대화했다. 솔리스트 다이아몬드 링(Soliste Diamond Ring)과 솔리스트 밴드 링(Soliste Band Ring) 쿠션 브릴리언트 컷의 센터 스톤을 감싼, 두 줄로 비드 세팅한 리운드 다이아몬드가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해 티파니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링. 밴드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기쁨 있는 매력을 선사한다. 문칭 당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디자인으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링 역시 고전적인 매력으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솔리스트 다이아몬드 링(Soliste Diamond Ring) 광채를 모양의 패어 컷 솔리스트 링은 센터 스톤을 감싸는 비드 세팅된 리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아우라져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문의 02-547-9488

© sponsored by TIFFANY&CO.

*a lifetime of*  
**Brilliance**

선명하고 사랑스러운 티파니 블루 박스, 그 컬러만으로 여자들을 기쁨 뛰게 하는 이 전설적인 브랜드 앞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고귀한 솔리테어 링의 대명사, 프리프즈의 상징, 여자들의 꿈이 된 티파니의 블루 박스와 티파니의 웨딩 링 스토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강렬한 핑 컬러, 편안한**

포물리가 선사하는 컬러의 마법  
다양한 립 제품을 접해보았지만, 근래에 강렬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립스틱은 샤넬의 신제품, '르 루쥬 크레옹 드 콜리르'. 티의 추종을 불허하는 샤넬만의 우아하고 세련된 컬러, 비르는 순간 입술에 녹아들 듯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텍스처, 더불어 제품을 꺼내 버리는 행위조차도 세련된 앤티튜드임을 보여주는 모던하고 시크한 패키지까지, 역시 샤넬이 만들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립 크레옹이다. 샤넬의 메이크업 제품은 따지지 않고 믿고 사용할 만큼 클래식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이 특별한 정보 롱웨어 립 크레옹 역시 클래식적인 부분에서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시아 여성에게 어울리는 여성스럽고 세련된,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뛰어난 발색력을 선사하는 11가지 컬러는 하나같이 모두 발라보고 싶은 정도로 실용도가 높고 매력적인 컬러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강렬한 부분은 각질이 있는 상태의 건조한 입술에 발라도 각질이 부각되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밀착된다는 점이다.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필립자를 함유해 너무 매트하지도, 그렇다고 립글로스처럼 너무 광택이 부각되지도 않으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예쁜 컬러와 텍스처라는 표현이 떠오를 만큼 은은하게 반짝이는 광택과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단연 돋보인다. 더불어 손으로 톡톡 두들기면 피부에 녹아들 듯 부드럽게 블렌딩되어 여러 컬러를 믹스해 나만의 립 컬러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 포인트다.



*Sketch your lips*

샤넬의 신제품 립스틱, '르 루쥬 크레옹 드 콜리르'는 같은 크레옹 타입의 립 제품도 샤넬에서 만들면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1가지 컬러의 이 특별한 정보 립 크레옹이 선사할 즐거운 컬러의 마법이 지금 펼쳐진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실용적인 멀티 립 크레옹  
르 루쥬 크레옹 드 콜리르는 입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멀티 립 크레옹이라는 애칭에서 엿볼 수 있듯 블러셔로도, 아이섀도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이펙트인 것. 끈적이지 않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컬러 발색 또한 자연스럽고 뽀얗지 않아 크립 블러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피지 그림을 그리듯 크레옹을 볼에 쓱쓱 터치한 후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주면 끝! 편안하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양 볼 혹은 눈가에 부드럽게 녹아 자연스러우면서 생기 넘치는 컬러를 더해준다. 여러 번 발라 선명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여러 컬러를 믹스해 내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재조합할 수도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11가지 핑 컬러의 매혹적인 컬러 플레이를 즐겨볼 것. 1.2g 4만2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CHANEL.



# Speedmaster 60th Anniversary

1965년 6월 3일, 미국의 첫 우주 유영에 성공한 '에드워드 화이트'의 손목 위에 채워진 시계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라는 것을 아는가? 전설적인 위치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다.

##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다

지난 6월 29일, 오메가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브랜드의 상징적인 크로노그래프 워치,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전시회를 공개했다. 1957년에 탄생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계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사실 레이스 경주를 위해 처음 제작되었지만, 그 명성은 달과 함께 시작되었다. 뛰어난 가독성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인하고 인류 첫 달 착륙 미션에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들의 손목 위에서 구름을 누비고 달 표면에 닿으며 지구 끝까지 나아가 다양한 영역을 정복했던 것. 마치 달에 착륙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신비로운 우주 공간으로 연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늘날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의 원형인 1968년 모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총 5점의 빈티지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은 물론, 2017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스피드마스터 신제품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달 착륙뿐만 아니라 파일릿, 항공술, 그리고 탐험가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 시계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 기념 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오메

가 청담 부티크에서 진행되며, 2017년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스피드마스터 제품과 함께 배우 유지태가 내레이터로 직접 참여한 스피드마스터 스페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해시태그 #SpeedmasterFans, #Moonwatch, #청담오메가부티크를 통해 SNS 포스팅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며, 방문 시 전시 관람 가이드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더욱 자세히 감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위 해시태그를 검색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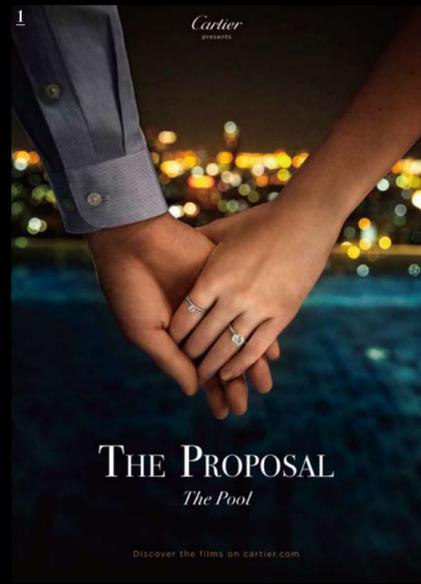
## 2017년 더욱 새로워진 '스피드마스터'

1957년 오메가는 방수 기능을 갖추면서도 사용하기 쉽고, 놀라운 정확성을 갖춘 견고한 크로노그래프 시계 제작에 돌입했고, 그 결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계가 탄생했다. 바로 베젤에 타키미터 눈금을 갖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그 주인공이다. 스피드마스터의 유산과 정신은 오늘날 선보이는 모든 새로운 모델에 반영된다. 이번 2017 바젤월드를 통해 첫선을 보인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두 가지 컬렉션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먼저, 한층 간결해진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특징인 '스피드마스터 38mm'는 60년의 유산과 특징은 그대로 지녔지만, 더욱 간결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활용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여성용 모델의 경우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에 브라운 알루미늄 링과 타키미터 스케일을 매치해 다이아몬드의 우아한 품격과 오리지널 스피드마스터 모델의 상징인 스포티한 매력을 동시에 잡아내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것. 또 레이싱 다



1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는 전시 내부. 2 배우 유지태가 행사장을 찾았다. 3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mm 버전. 4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마스터 크로노미터 모델.

이얼의 귀환이라 할 수 있는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마스터 크로노미터'는 1968년 출시된 스피드마스터 모델에 최초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에 특별한 마틴 트랙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으로, 스피드마스터의 모터 레이싱 유산을 기념해 매트 블랙 다이얼 버전으로 선보인다. 이처럼 오메가는 다시 한 번 기능과 디자인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동시에 스피드마스터의 유산을 더하며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다. 스피드마스터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계 중 하나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 문의 02-511-5797 **에디터 이지연**



# The Proposal

영원한 사랑에 바치는 까르띠에의 헌사

TV 시리즈 <디 어페어(The Affair)>로 유명한 라이언 플렉과 애나 보든 감독의 앙상블 영화 <프리포즈>로 재탄생했다. 까르띠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사랑, 그리고 프리포즈 이야기.

## 우아하고 낭만적인 두 편의 프리포즈 이야기

유투브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패션 하우스들의 필름 전략에 까르띠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까르띠에 디지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두 편의 1백5초 단편영화가 공개된 것. 이 단편영화는 첫 만남부터 프리포즈까지 러브 스토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브랜드의 상징인 아이코닉 까르띠에 레드 박스에 담긴 눈부신 다이아몬드 링과 함께 더욱 눈부시고 감동하게 연출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The Pool>은 흥겨운 음악이 흘러 나오는 풀사이드 파티에서 시작된다. 여주인공 비앙카는 춤을 추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남성과 부딪히며 그를 수영장에 빠뜨리는데, 이 남성은 당황하는 비앙카에게 오히려 자신을 팀이라고 소개하며 '물속'에 함께 있겠다고 유쾌하게 대처한다. 2년 후, 비앙카의 손을 잡고 처음 만난 수영장으로 인도한 팀은 갑자기 수영장에 뛰어들더니 그때와 같이 물속에서 비앙카를 바라보며 'Will You Marry Me?'라며 레드 박스를 건네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두 번째 이야기 <My Favorite Song>에서는 이웃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화가 난 여주인공 홀리가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하는 남주인공 폴의 환한 미소와 화가는 녹듯 녹아내리고, 혹은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는 다시 와서 말해줄 수 있느냐는 폴의 요청에 그녀는 웃으며 응한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피식 웃으며 폴에게로 달려가는 홀리.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한 채즈 바에서 '이 노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둘을 처음 만나게 한 노래를 부르는 폴과 마주하게 된다. 우연한 만남 속에 마주친 시선,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담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 편의 사랑 이야기는 홈페이지(www.cartier.co.kr)를 포함한 전 세계 까르띠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사랑을 전하는 순간 함께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링

아름다운 레드 박스에 담긴 찬란한 다이아몬드 링은 두 편의 프리포즈 스토리에 함께했다. 우아하고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를 더욱 눈부시게 빛내준 까르띠에의 다이아몬드 링을 소개한다. 먼저, 서로를 처음 만난 풀사이드 바에서 폴이 비앙카에게 프리포즈할 때 사용한 링은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으로, 메인 스톤을 더욱 환하게 밝히주기 위해 그 주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밴드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중앙의 스톤을 더욱 빛나도록 했다. 프리포즈 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인의 솔리테어 링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 0.50~4.99캐럿 다이아몬드 세팅 가능하며, 특별한 맞춤 서비스 'Set for You by Cartier'로는 0.50~2.99캐럿까지 세팅 가능하다. 두 번째 프리포즈 스토리에 소개된 반지는 궁극의 클래식함과 영원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상징적인 '솔리테어' 1895 링이다. 1895년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4개의 돌을 팔레트와 와이어 보드기 이루어진 마운트는 섬세한 균형을 지양하며 심플하면서도 다이아몬드를 이음에 없이 세팅한 느낌을 주어, 센터 스톤의 빛을 극대화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특별한 돌만의 프리포즈 반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은 레드 박스 안에 담겨 있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이지연**



1, 2 까르띠에 디지털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프리포즈>의 한 장면. 3 까르띠에 '솔리테어' 1895 링. 4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

# Sweet dreams

사랑하는 연인과의 낭만적인 프리포즈의 순간에도, 그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웨딩 마치에서도, 항상 완벽한 아름다움과 최상의 가치로 함께할 타사키의 웨딩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최고의 퀄리티를 증명하는 사이트홀더

보석이 지닌 본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는 타사키. 타사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라인인, 진주를 일렬로 나란히 세팅한 밸런스 컬렉션이다. 이는 전통적인 주얼리 디자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상급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파격적으로 접목한 디자인으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니크한 디자인만이 타사키의 특별함일까? 아니다. 타사키 다이아몬드의 특별함은 바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G에서 직접 원석을 가릴 수 있는 자격인 '사이트홀더'에서 비롯된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의 능력은 물론 마케팅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일본 포함 동아시아 유일의 사이트홀더인 타사키는 1994년에 자격을 취득한 후 고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매달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또 진주 양식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총괄하는 타사키는 다이아몬드를 다룰 때도 자체 감정과 연마를 고집한다. 모든 원석은 숙련된 기술을 갖춘 장인의 정확한 카팅을 통해 영원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난다. 타사키는 'Very Good'을 뛰어넘은 'Excellent'라는 기준을 제시했을 정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엑셀런트'는 완벽한 비율과 대칭, 마무리로 완성된 다이아몬드에 주어지는 등급으로, 타사키가 최초로 만들었다. 사이트홀더 자격으로 최고의 원석을 취급하는 타사키. 웨딩 링을 고를 때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 사랑의 서약, 타사키 웨딩 컬렉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고른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다.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의 세월을 걸쳐 생성되어 세상 어느 곳보다 단단하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자신의 사랑 또한 영원히 버러는 굳은 바람이 담겨 있기에, 이처럼 타사키에서 제안하는 브라이덜 컬렉션은 다이아몬드의 품질과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장인 정신까지, 일상에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에 어울리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먼저, 순백의 신부에게 가장 잘 어울릴 솔리테어 링 '피아네트', '비온드', '꽃봉오리가 피어 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인블롬 링' 외에 함께 매치할 웨딩 밴드 링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특히 이탈리아어로 큰 꽃잎을 뜻하는 '라벨로' 컬렉션은 유려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이며, 피아노 건반에서 모티브를 얻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피아노' 라인인 오직 타사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쿠라골드(SAKURAGOLD™)를 사용해 더욱 특별하다. 타사키에서는 예비 신부를 위한 웨딩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타사키 브라이덜 컬렉션 제품을 구매하면 타사키에서 특별 제작한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 2단함을 제공하고, 영원한 순간으로 기억될 결혼식 당일,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신부로 만들어줄 타사키의 최상급 진주가 장식된 타이어를 대어준다. 더불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브라이덜 페어 기간 동안 솔리테어 링 또는 카를 밴드 링을 구매하는 예비부부에게 7mm 진주 이어링을 증정한다고. 이번 웨딩 프로모션은 전국의 타사키 전 매장(아웃렛 제외)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이지연**

(오른쪽 면 위에서 아래로) 2.04캐럿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으로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피아네트 솔리테어 링, 플래티넘 밴드를 따라 다이아몬드를 생생하게 세팅한 피아네트 하트 에쿠터 링, 1.57캐럿의 솔리테어 다이아몬드와 밴드 부분의 핏팅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고 볼드하게 완성한 비온드 인게이저먼트 링, 반으로 카팅한 5mm 타코야 진주 사이로 최상급 0.5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이 독특한 인블롬 링. (왼쪽 면 위에서 아래로) 1.12 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큰 꽃잎을 형상화한 곡선형 밴드 디자인이 특징인 라벨로 솔리테어 링, 이번 시즌 처음 선보인, 밴드 링에 다이아몬드 카드 링을 레이아웃해 착용한 듯한 디자인의 피아노 듀엣 링, 피아노 건반에서 모티브를 얻은 중성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카를 링으로도 반응이 좋은, 중앙에 0.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노 솔리테어 링, 밴드 안쪽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피아노 파베 밴드 링 모두 타사키.



© sponsored by TASAKI

# Sheer Bliss

고귀하고 클래식한 웨딩드레스부터 사랑스러움이  
빛을 발하는 원피스 룩까지. 그 어느 순간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가을 신부의 로맨틱한 웨딩 신.  
*photographed by song chang rae*



구조적인 쇼트 슬리브 미니멀 드레스 1백30만원대 **질 샌더**. 클래식한 레이스 페이스 베일 가격 미정 **사라 가브리엘 by 더캔라운지**. 검 모양의 블루 스틸 핸드를 더한 스틸 브레이슬릿 밴드 드 가르피에 워치 4백30만원대. 스크루 모티브에 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러브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모두 **까르피에**.

풍성한 힐 소재가 로맨틱한 튜브 드레스  
가격 미정 **카사블랑카 by 델리아 브라이드**.  
18K 옐로 골드 소재 보디에 이코아 진주를  
세팅해 별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어브스트랙 스타 네크리스 8천9백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 바위에 이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던한 밸런스 솔로 링  
9백70만원대 모두 **타사키**.



비즈 장식 튜트 힐 드레스 가격  
미장 **갈리아하브 by 마리벨로**,  
일사위 모양 헤어밴드 가격 미장  
**제퍼 베이 by 더판리운지**.



골드 버튼 장식 오픈 슬더 드레스  
가격 미장 **발랑**, 안티크 플라워 모티브  
아아랑 가격 미장 **제퍼 베이 by**  
**더판리운지**, 스웨이드 소재 발레리나  
슈즈 63만원 **스튜디오 와이츠먼**.

프린지 장식 슬리브리스 원피스  
4백70만원, 블랙 & 화이트 펌프스  
1백50만원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엔티크한 일사기 모티브 헤아랜드  
가격 미정 **히트 오브 골드 by**  
**더클라우드**. 담수 진주와 18K  
사쿠라골드로 표현한 별 모티브 반지  
2백60만원대 **타사키**.



반티지 무드의 레이스 드레스 가격 미정 **제인미씨**.



트윅 소재 민트 컬러 블레이저 96만원, 팬츠 58만원 모두 **일렉사 청** by 네타포르테, 레이스 트림 베일 가락 미장 **밀리아 브라이드**.

청량한 블루 컬러 트윈드 재킷  
1백68만원 **피에르 발랑**,  
시스루 라인 포인트 슬림 드레스  
17만8천원 **클루드클레어**, 스톤 장식  
스트랩 슈즈 가격 미장 **미우미우**.



헤어 이길중  
메이크업 김부성  
모델 박사라  
플로리스트 시혜정(S. FLORA)  
스타일리스트 변정아  
진행 최은주(객원 에디터)

까르띠에 1566-7277  
네타포르테 0079-844-341-351  
더본문지 02-548-7218  
밀리아 브라이드 02-544-0520  
제인 마치 02-547-3217  
질 샌더 02-547-4485  
마리벨르 02-543-3182  
미우미우 02-3479-6182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발랑 02-6905-3585  
스튜디오 와이즈먼 02-3449-5903  
클루드클레어 070-5033-6436  
타사키 02-3461-5558  
피에르 발랑 02-6905-3674

# Big match

휴양지로 떠나기를 떠나다면, 수영복부터 플립플롭, 선글라스, 카메라까지 모두 답을 수 있는 가볍고 실용적인 빅 사이즈의 비치 백이 필수다. 비치 웨어를 빛내줄 워트 있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빅 사이즈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놀람도록 가볍고 실용적인 소재와 구조적인 세이프로 데일의 빅 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비치 백, 34X29cm, 1백55만원 **비오바오**, 귀여운 몸통 장식이 돋보이는 라피아 토트백, 가죽 소재의 가방 핸들과 태슬 장식으로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라피아 백에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33X38cm, **로플라렌탈 by 라울**, 그리워하던 아자수 패턴의 원피스 수영복 36만원 **빌브레킨**, 탄탄한 소재와 비지 타월도 가뿐히 들아가는 빅 사이즈가 실용적인 아이브리 캔버스 백, 52X45cm, 88만원 **소니아 리키엘**, 그물망처럼 편가벼운 마 소재의 'HOLA' 레터링 백, 구멍이 가지 않고 가벼워 돌돌 말아 가방에 쏙 넣을 수 있어 더욱 간편하다. 37X48cm, 19만5천원 **라트비아터**, 원숭이, 플라워 등 아늑적인 패턴이 감각적인 프린트 캔버스 백, 48X36cm, 2백만원대 **에르메스**, 상큼한 과즙이 흐를 듯한 워트 있는 레온 모티브의 토트백, 방수 가죽으로 만들어 오염과 물에 강하다. 54X26cm, 7만5천원 **텐도 by 분다삼**.

에디터 권유진  
비오바오 02-6905-3531 라울 02-517-8533  
빌브레킨 02-3479-6150 소니아 리키엘 02-3213-2328 라트비아터 02-3449-5977 에르메스 02-542-6622 분다삼 02-2056-1234



스타일리스트 윤현정 이사스틴트 이세진



(맨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릴리안 마줄리카 패턴 레더 슬리퍼 52만원대 **플레젠가바나 by 네타포르테**, 별 자수 패치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카치한 강성을 완성한 슬리더 슬리퍼 70만원대 **미라 마티 by 분다삼**, 시릴리안 양귀족 슬리퍼 75만원 **인야 윈드미치**, 모노그램 플라워와 금속 이음질을 수놓은 캐주얼한 디자인의 물 1백2만원 **루이 비통**, 라플 대테일이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의 수즈 41만5천원 **조슈아 샌더스 by 10 프로스 코모**, 시릴리안 핑크색 양귀족 피로 장식한 슬리퍼 79만원 **자참시**.

# Luxury slider

슬리퍼가 패션 하우스 컬렉션에서 재조명받으며 슬라이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양한 소재와 함께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시즌리스 아이템으로 떠오른 럭셔리한 슬라이더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그리 컬러 양털과 고급스러운 벨벳 소재 스트랩이 아우라진 수즈 95만원 **프라다**, 핑크 컬러 토틀에 크리스탈 장식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배가한 물 1백37만원 **마우마우**, 리본 매듭으로 포인트를 준 앙증맞은 디자인의 슬리퍼 87만5천원 **인토니오 마란스**, 황황색의 몸통이 눈에 띄는 슬리퍼 63만5천원 **로플라렌탈 by 라울**, 데이지 꽃 모티브 스웨이드 수즈 1백28만원 **파브리치오 비티 by 10 프로스 코모**, 에디터 이지연 **프라다** 02-3218-5331 **마우마우** 02-3218-5331 **인토니오 마란스** 02-3449-5962 **라울** 02-517-8533 **10 프로스 코모** 02-3018-1010 **네타포르테** 0079-844-341-351 **분다삼** 02-2056-1234 **인야 윈드미치** 02-6905-3336 **루이 비통** 02-3432-1854 **자참시** 02-517-7560



스타일리스트 윤현정 이사스틴트 이세진

# editor's Pick

가장 아름답게 빛날 신부를 위한 웨딩 D-DAY 뷰티 아이템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직접 테스트해보았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산티아고 노벨라** 아쿠아 소아베 에센 제품을 사용한 향과 촉감, 촉촉함에 대해서 놀라운 만족감을 선사하는 산티아고 노벨라. 이 특별한 이탈리아 브랜드의 정수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상쾌한 보디 토너, 아쿠아 소아베를 추천한다. 페퍼민트, 캐비카임 에센셜 오일이 즉각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뛰어나다. 화려한 화장품의 차가운 느낌에 익숙해진 이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볼 것을 추천한다. 무거운 밤 밤새도 한순간에 제거할 정도로 향이까지 뛰어나다. 250ml 11만8천원. 문의 02-546-1612. *by 에디터 배미진*

**메이크업 마그네틱스 15** 웨딩 데이에 맞춰 집에서도 간편하게 윤곽 케어 미샤를 할 수 있는 페이스 마사지. 얼굴선에 맞춰주는 최적의 각도에 마그네틱 스틱을 움직여주는 디퍼블러 타입인 미샤자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순환을 도와 탄력 있는 얼굴로 거듭날 것이다. 7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지연*

**글레드보 보네 루주 아 레보르 7초 드레곤 레드** 이브닝 파티에서 레드 립이 빠질 수 없다. 특히 이 립스틱은 입술의 윤곽을 따라 그릴 수 있게 설계된 S자형 단면이 특징으로, 거울을 보지 않고도 손쉽게 바를 수 있는 클러치 속 필수 아이템. 레드 립스틱의 정석을 보여주는 에벤 레드 컬러가 피부 톤을 화사하게 실러준다. 4g 6만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권유진*

**랑콤 올림피아 올드랜드 컬렉션 쿠션 컴파트** 패션 브랜드 올림피아 런칭과 함께 탄생한, 영블럼을 수놓은 케어 라인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 랑콤의 2중 네트 기술을 적용해 매일 세 쿠션을 쓰는 것처럼 깨끗하고 가벼운 텍스처가 특징이다. 기초 세안 후 쿠션인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피부 결을 말끔히 커버할 수 있다. 13g(리필 포함) 7만8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이지연*

**샤에도 더헤어 케어 에일리 플로우 인텐시브 이펙트** 작은 튜브 하나를 머리 전체에 도포하고 씻어내는 타입의 플로우 트리트먼트. 전문 헤어 샵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효과가 즉각적이다. 머리카미가 가벼워지고 두껍게 붙는 현상이 즉각적으로 사라진다. 작은 사이즈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더욱 편리하다. 샵용 전문 케어를 홈 케어로 경험해보고 싶은 실용파에게 추천한다. 20gx6개 5만2천원. 문의 02-555-8839. *by 에디터 배미진*

**인스티튜트 카리테 쏘 기본 리워드 슝 레몬 바네나** 에르메스 향수의 조형사 출신이 만든 아름다운 향기를 담은 프리미엄 사파비트 브랜드의 핸드 워시. 보습력이 뛰어난 사파비트를 베이스로 실용적인 제품에 고급스러운 향기를 담았다. 프랑스 마르세유 전통 방식의 비누 제조법으로 만든 식물성 오일이 담겨 있어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여름철에 제격이다. 용량이 충분히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500ml 2만6천원. 문의 080-852-0808. *by 에디터 배미진*

**선풍수 살인팩** 씻어내는 팩 종류에서 독보적인 고정 팬을 가지고 있는 선풍수. 동양적 아름다움과 소비로운 기운을 지닌 옥(玉) 성분을 담은 귀한 화장품이다. 바리자차 차기유치는 자극적인 이온스 팩보다 친한 피부 온도를 낮추어주는 수면 팩을 사용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다. 선풍수의 살인팩을 추천한다.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80ml 8만5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미진*

**이슬 이스트로스 아로마틱 플 스프레이** 공간을 매혹적인 아로마 향으로 가득 채울 플 스프레이이다. 잠들기 전 창대 패브릭은 물론 방 안에 살포시 뿌리두면 약 3시간까지 향이 지속된다. 따뜻한 시더와 샌들우드 베이스 위에 핑크 페퍼와 라벤더, 미모사 등의 향을 밸런스에 활기찬 기운을 북돋아준다.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로 제격일 듯. 100ml 6만4천원. 문의 1800-1978. *by 에디터 이지연*

**마크 제이콥스 데이지 화이트 리미티드 에디션** 순백의 신부와 꼭 닮은 새하얀 보틀이 인상 깊다. 주시한 배와 화이트 제비꽃이 어우러진 싱그러움 향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순수한 느낌을 지어준다. 태완이 따스하게 내미는 자연의 공기를 떠올리게 한다. 여름 신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이 아닐까? 100ml 12만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이지연*

**팬탈리온스 엔프리카 보디 크림** 로맨틱한 숙웃보다 관능적인 향을 입었을 때가 더욱 sexy하다는 사실! 다이아나 비가 사랑한 향기로 유명한 엔프리카의 우아하고 럭셔리한 플로럴 향을 고스란히 담은 보디 크림으로, 촉촉한 것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여성스럽고 매력적인 향이 하루 종일 은은하게 피자는 것이 특징이다. 175ml 9만3천원. 문의 02-3438-6088. *by 에디터 권유진*

**실론 글라이드 50K** 겐드라이, 팔도리, 비키니 라인까지, 관능적이 할 부분이 너무도 많은 여자를 위한 초소형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항미세균 비염으로 잔여 수도 안전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레이저 조사 비빔을 누른 채 미끄러져 지든 옮겨주면 계속해서 레이저가 조사되는 글라이드 필싱 기능을 갖추어 제모 효과가 뛰어나다. 1~5단계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각광과는 달리 통증이 없고, 18~24개월에 한 번씩 두 달간 제품을 사용하면 지속적인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다. 29만원. 문의 080-246-1234. *by 에디터 권유진*

**포일리 뷰티 엘리시르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분사액과 상쾌함, 수분 공급력 모두 뛰어난, 얼굴에 뿌리대지자 한번에 반한 제품. 포일리의 시그니처 원료인 포도 추출물을 베이스로 장미, 민트, 로즈마리, 오렌지 등 자연 성분들 가득 담았다. 여름철 미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시원한 에센스이기에 토너 단계에서, 혹은 수시로 사용하면 좋다. 작은 용량으로도 출시해 휴대하기 간편하다. 30ml 1만8천원, 100ml 5만9천원. 문의 02-6011-0212. *by 에디터 배미진*



## LIFESTYLE

**LG전자 스타일러** LG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필수 가전제품으로 떠오른, 순수한 물로 만드는 트루 스타일로 옷에 밴 냄새와 생활 구김을 없애 주는 스타일러를 소개한다. 옷장처럼 생긴 스타일러에 옷을 보관하면, 무빙 행어가 1분에 최대 2백 회 움직이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건조 뿐 아니라 제습 기능까지 겸해 여름철에도 활용도가 높다. 문의 1544-7777

## BEAUTY

**라프레리 스킨 케어** 아센스-인-로션 라프레리는 강렬한 햇빛과 더위에 지친 피부를 위한 스킨 케어 아센스-인-로션을 추천한다. 클렌징 직후 바로 사용하는 이 제품은 캐비어 추출물과 중기 증류법을 통해 추출한 캐비어 워터가 피부 톤을 밝게 개선해줄 뿐 아니라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탄력을 높여준다. 문의 080-511-6626

**사벨 르 루주 크레올 드 콜워의 사벨**은 완벽한 즐거움과 자유를 선사할 새로운 립스틱 '르 루주 크레올 드 콜워' 정보 롱 웨어 립 크레올을 선보인다. 총 11가지의 강렬한 핑 컬러와 함께 완벽한 유착하는 사벨 피니 효과를 선사하는 이 제품은 립뿐 아니라 블러셔로도 활용 가능하다.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갈색병 아이 에센스 크림** 에스티 로더는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매트릭스'를 소개한다. 일명 갈색병 아이 에센스 크림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눈가에 탱 탱하게 차올라 쿠션 작용을 형성하는 혁신적인 360° 매트릭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멀티 리페어, 피부 강화 기능, 울트라 나리시 포뮬러를 적용했다. 문의 02-3440-2772

**프라다 에디켓 백** 프라다는 의류에 사용하는 프라다의 블루 태그를 모티브로 한 '에디켓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슈즈와 의류에 숨겨져 있던 블루 라벨을 백 전면의 장식한 이 백은 액세서리의 본질적인 장식에 메인 아이콘으로 표현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 로고를 숨기고 라벨을 아시 차게 활용한, 각색을 벗어난 디자인은 브랜드의 상징성을 더욱 극대화한다. 문의 02-3218-5331

**브루넬로 쿠치넬리 아반 익스플로러 컬렉션**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탐험'이라는 주제로, 시티 라이프를 즐기면서 동시에 자연의 장적인 면을 동경하는 여성을 위한 2017 F/W 컬렉션을 공개한다. 글리터한 지수 장식으로 한층 풍성해진 텍스처의 니트 웨어, 넓은 라벨, 더블브레스트 등 매니시한 데테일을 결합한 아우터 웨어, 스키 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슬림하고 유연한 라인의 트라우저 팬츠 등 여러 가지 소가 절충과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문의 02-3448-2931

**조르지오 아르마니 MTM** 티셔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지난 7월 7일 아르헨테나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다크 그레이 컬러의 3피스 MTM 티셔츠를 착용한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다. 아르마니의 장인 정신과 독보적인 테일러링 기술을 적용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MTM(Made to Measure) 서비스는 청담 전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9-3335

**캠블리라인 The XX 프로젝트** 캠블리라인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프 시몬스가 포토그래피이자 영화 제작자인 알라스데어 맥켈과 함께 영국의 핫한 밴드 'The XX'의 뮤직비디오 'I Dare You'의 콘셉트 디렉션을 맡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라프 시몬스가 진두지휘해 제작한 감각적인 영상은 'The XX'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11-0804

**슬로웨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슬로웨어는 지난 6월 19일 밀라노 패션 위크를 기념해 'Is Art' in-



**에르메스 에르메스 클럽 개피** 에르메스는 여성에 대한 애정의 의미를 담은 윗트 낚시는 에르메스 클럽을 지난 6월 15일 상하이 롱 무자점에서 개최했다. 특별한 멤버들만 초대된 이 파티는 에르메스의 2017 F/W 여성 컬렉션이 공간 곳곳을 장식했으며, 예술적 열정으로 가득 찬 6월 19일 밀라노 패션 위크를 기념해 'Is Art' in-fashion?이라는 주제로 밀라노 쇼룸에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본 행사에서는 비주얼 아트 분야 의 젊은 아티스트 12인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슬로웨어에서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70-4145-0101

**로로피아나 MTM 서비스** 로로피아나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분사의 마스터 테일러가 창당 플래그십 매장을 방문해 혁신적인 패브릭에 장인 정신이 담긴 MTM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객이 로로피아나의 베스트셀링 슈츠 아이템의 라스트, 소재, 컬러, 디자인 등을 직접 선택해 커스터마이징 디자인할 수 있는 주문형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참고할 것. 문의 02-6200-7704



**캠블리라인** 슬로웨어 길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한 자리였다. 문의 03-3015-3251

# SHOWROOM

**반클리프 아펠 참 엑스트라오디네리 페 사쿠라** 반클리프 아펠은 일본 도쿄에 갔다 부티크를 오픈하며 만가한 빛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참 엑스트라오디네리 페 사쿠라'를 처음 선보였다. 짙은 핑크 배경의 다이얼에 다양한 주얼리 에메랄드 기법을 활용해 화려한 매혹적인 빛꽃 풍정이 인상적이며, 1백 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0798-852-16123

**불가리 뉴 무사 링** 불가리는 생기 넘치는 컬러 젤 스톤이 아름답게 빛나는 '뉴 무사 링'을 새롭게 소개한다. 27가지 크기로 만날 수 있는 뉴 무사 링은 핑크 골드 소재를 바탕으로 하며 각각 에미시스트, 말라카이트, 머더오브블로 장식한 67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문의 02-2056-0171

**타사키 피아노 듀엣 링** 타사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웨딩 링 피아노의 새로운 여성용 디자인



**몽블랑 타임워커 컬렉션 론칭 행사** 몽블랑은 지난 6월 29일, 성수동 레이어 57 스튜디오에서 크로노그래프의 명가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모터 레이스 정신을 표현한 새로운 타임워커 컬렉션의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올해 출시한 신제품들과 함께, 쉽게 볼 수 없는 과거 미네르바의 스톤워치 5피스를 전시에 미네르바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문의 1670-4810

**티파니 이스트 웨스트™ 다이아몬드 워치** 티파니는 깔끔한 라인과 직사각형 모양이 눈에 띄는 티파니 이스트 웨스트 컬렉션 디자인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추가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이스트 웨스트 다이아몬드 워치'를 선보인다. 직경 37x22mm 사이즈와 42x25mm, 27지 케이스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2-547-9488



## JEWEL&WATCH